



『꿈과 희망을 키우는 인재 육성』 가정통신문

발송일: 2022.9.7.
발송처: 임피중학교
문의전화: 453-9642

제 목

제목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본교는 사교육비 경감 및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교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,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1 '공교육 정상화법' 제정 배경

- 가.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피해 방지
 -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,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,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
- 나.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
 - 선행학습(사교육 경험)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
 -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

2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목적

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「교육기본법」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3 선행의 판단 기준

통상적으로 교수·학습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.

4 학부모의 책무 [공교육정상화법 제6조]

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함.

5 본교 방침

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본교는 교과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,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으로 지필평가, 수행평가,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.

(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)

※ 선행교육·출제 신고센터운영

도교육청 : ☎ 063-239-3251

교육지원청 : 교육지원청별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업무담당자

2022. 9. 7.

임피중학교장(직인생략)

「선행학습 폐해」 연수 자료

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학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,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□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

○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.

□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

○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,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,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.

□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

○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(예: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)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

□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

○ 통계청이 발표한(2020.3.10.) 2019년 초·중·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